

부산시립극단 제48회 정기공연

어창이 고마단



Story 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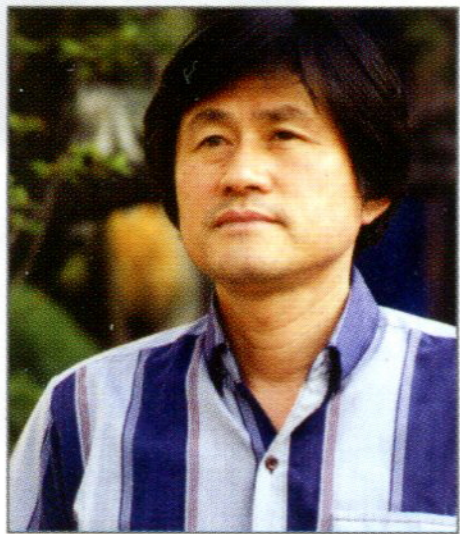
봄날은 간다

2013. **9.26**(목) ~ **29**(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평일 19:30 / 토요일 15:00, 19:30 / 일요일 15:00 / 균일 10,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 주관 부산시립극단 / 기술협력 **DSU** 동서대학교

작가소개



작가 김상열

金相烈 (극작가, 연출가)
[1941.8.8~1998.10.26]

1996년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여, 1967년 동문들과 함께 만든 극단 가교의 초기멤버로 시작, 곧바로 무대현장에 뛰어들었다.(추후 상임연출과 대표('75) 역임).

천막극장, 교도소 순회공연, 동남아 순회공연, 실험극 등 젊은 날의 열정은 1976년 한국연극영화예술상 연출상(유랑극단)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힘입은 풍부한 무대현장 경험은 생동감 있는 창작열로 이어져 「까치교회 우화」(문공부공모 희곡당선 '75), 「길」(제7회('77) 도의문화저작상)을 시작으로 연출의 시각으로 작품을 쓸 수 있는 현장성 있는 극작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또한 그의 예리한 감성은 TV극 「수사반장」을 4년간 집필하며 그 빛을 발했고, 1978년 현대극장 상임 연출로 자리를 옮기며 전문성을 띤 대형 무대를 넉넉하게 만들어 냈다. 미국 뉴욕 '라마마'극단('81)에서 1년간 연수를 받고 돌아오기도 한 그는 우리 것, 우리의 작품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언챙이곡마단」('82)을 인상 깊게 무대에 올리기도 했으며, 농익은 창작열은 작·연출의 무대를 마음껏 만들 수 있는 우리극단 '마당'세실극장(대표)으로 자리를 옮기며 계속되었다.('84)

1988년, 드디어 자신의 극단 '神市'를 창단하고 작고 시까지(1995년 신시뮤지컬컴퍼니 창설) 이끌어 가면서 창작극, 창작 뮤지컬, 마당놀이, 악극 등 왕성한 창작과 힘찬 무대를 만들며 TV극본을 비롯, 88서울올림픽 개폐회식, 대전 엑스포, 세계 잼버리대회 등 국제적인 문화행사에도 구성대본과 총연출을 맡아 탁월한 능력을 유감없이 분출하였다. 이러한 그의 역량은 백상예술대상 희곡상 및 연출상, TV극본상, 서울연극제 작품상 및 희곡상 등 수많은 수상으로 인장 받았다.

그는 극작가, 연출가로서 수많은 창작극과 더불어 우리 민속연희의 생명체였던 풍자와 해학을 주류로 관객과 함께 만들어 가는 놀이마당의 현장성을 예술성 있는 마당놀이로 절묘하게 승화시켜 놓았고, 동심을 잃지 않았던 그는 어린이 뮤지컬 분야의 개척에도 온 힘을 기울였으며, 90년대에는 현대로 끌어들이는 악극작업으로 대중극의 선풍적 바람을 일으켜 놓았다.

다양한 장르의 개척과 발전에 선구적 역할과 살아 있는 희곡으로의 완성을 위해 매진했던 그는 누구보다 무대현장과 가장 직결된 창작 활동을 한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예술가였다.

드라마트루기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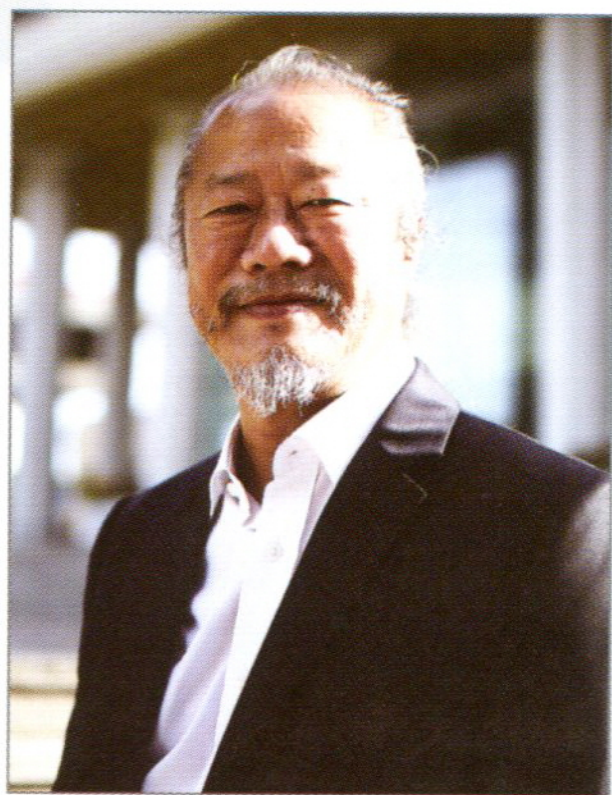


드라마트루기 오리라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대표
부산 희곡 작가협회 사무국장
제30회 부산연극제 신인연기상

언챙이 곡마단은 1982년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故 김상열 선생님의 작,연출 창작극으로 초연된 공연으로, 삼국 통일을 앞둔 신라가 백제와 마지막 다툼을 벌이던 660년 7월 7일부터 18일까지의 긴박한 상황을 흥겨운 놀이마당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해학과 풍자가 잘 녹아 있는 작품인 만큼, 그 메시지는 30여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에 적용해도 어색함이 없고 그 양식 또한 세련되었습니다. 한국 악극과 뮤지컬을 정착시킨 시대의 연출가 김상열 선생님의 작품을 공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드라마트루기로서 선생님의 작품을 분석해보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언컨대, 부산 시립극단의 스토리 콘서트 '언챙이 곡마단'은 이제까지의 그 어떤 '언챙이 곡마단' 공연보다 명쾌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CAST



오광대 이돈희



노파 정행심



왕비 이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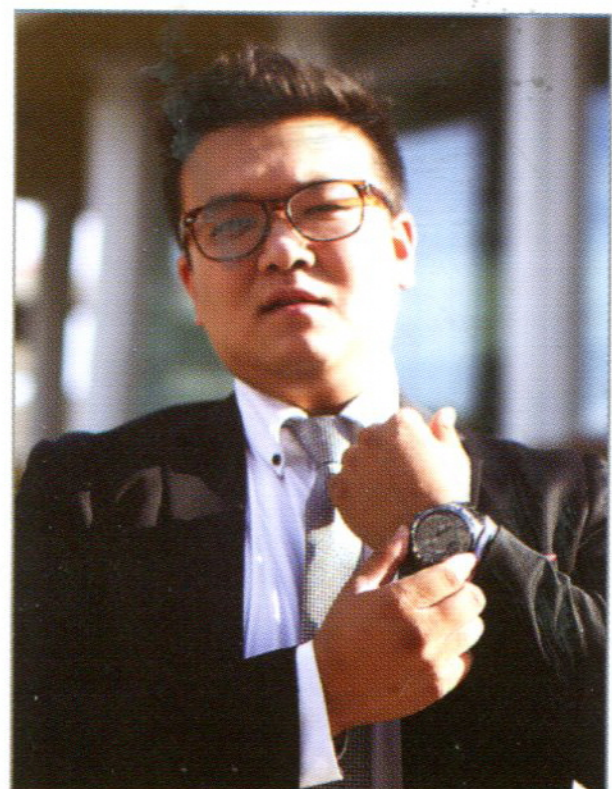
아라녀 오희경



노파 김은옥



김유신 서보기



계백 신승우



법민 김성열



품일 임신효



성충 이재찬



오광대 이돈희



김춘추 황창기



의자왕 이혁우



최광대 주은실



추광대 · 기자 이수아



관창 전지은



공녀A 이효심



공녀B 정인옥



기자 김보경

연출의 변



연출 문석봉

현,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전,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뮤지컬단 제작감독
충무로 국제영화제 기획사업부 총괄부장
경기도 문화의전당 경기도립극단 예술감독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 수상 - 연인과 타인
동아연극상 대상 2회수상 -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에드워드 올비)
- 무덤없는 주검(장 폴 사르트르)

마당놀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연 장르입니다.

장날 시끌벅적한 장터에서도 용두산 공원에서든 너른 백사장에서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고 컬러텔레비전이 보급된 이후에는 MBC 마당놀이의 인기를 시작으로 브라운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마당놀이가, 시대가 바뀌고 공연장들의 실내 프로시니엄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어느 순간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좋아하는 촌스럽고 재미없는 공연으로 퇴락해 버렸습니다.

마당놀이야 말로 당시 현실에 대한 해학과 풍자가 녹아 있는 훌륭한 전통 공연 문화입니다. 시대를 따른 공연 공간에 걸맞게 변형, 진화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부산 시립극단이 선보이는 스토리 콘서트 '언챙이 곡마단'은 기존 사방객석과 무대의 공간을 사용하던 마당놀이가 실내 프로시니엄 무대에서도 가능하도록 '회전무대' 구조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면이라는 제한적 공간을 이백 퍼센트 이용하고 입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또 다른 놀이마당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주는 조개의 병이며 아픔이나, 진주로 해서 조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온갖 잡동사니들을 쌓아놓은 음산한 공사장 같은 무대가 조명이 들어오고 음악이 시작되고 오방천이 펄럭이면 어느덧 황산벌이 되고 사비성이 됩니다. 조작되고 예언되고 창작되는 역사 속에서 병이나 아픔을 진주로 만들어 내는 조개처럼 전통을 잇는 일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공연의 과감한 시도와 머뭇거림 없는 표현이 오늘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즐거움과 감동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연출 오세준

현, 동서대학교 뮤지컬학과 교수
동서대학교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극장장
전, P.A. Lab 대표
극단 광장 뮤지컬 배우
영화 7번방의 선물 뮤지컬 연출
제30회 전국연극제 개막식, 폐막식 연출
뮤지컬 코요테어글리 작, 연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원하는 대로 말이 안나옵니다. 아니 원하는 대로 말 해서도 안되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챙이가 되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모두 비틀어져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극을 통해 세상을 이야기 해야만 합니다.

곡예를 부리는 우리는 곡마단입니다.광대의 우스꽝스러운 짓거리를 통해 양반님네 혼줄을 냅니다. 우리의 잔재주로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챙이 곡마단입니다.

언챙이 곡마단은 지극히 실험적이고 전위적입니다.

하지만 감각을 후비는 즐거움과 양심을 파고드는 직언과 이성애 호소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재미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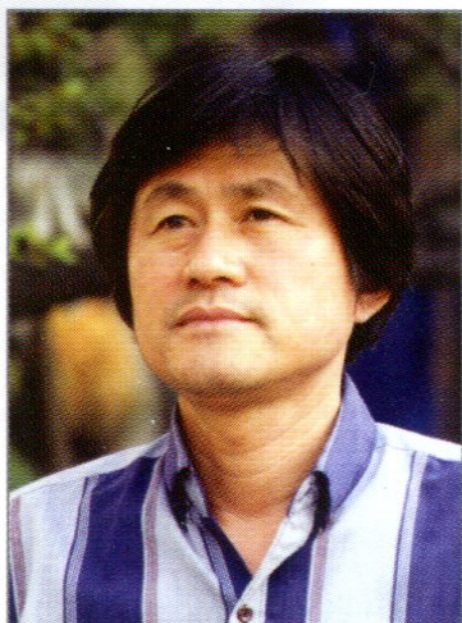
우스꽝스러운 뉴스들이 가득한 이 재미있는 세상과도 같습니다.

좋은 작품을 좋은 스태프와 함께 모여 부산시의 대표 배우 분들과 함께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문석봉 예술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동서대학교의 기술협력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곡마단의 헛소리를 재미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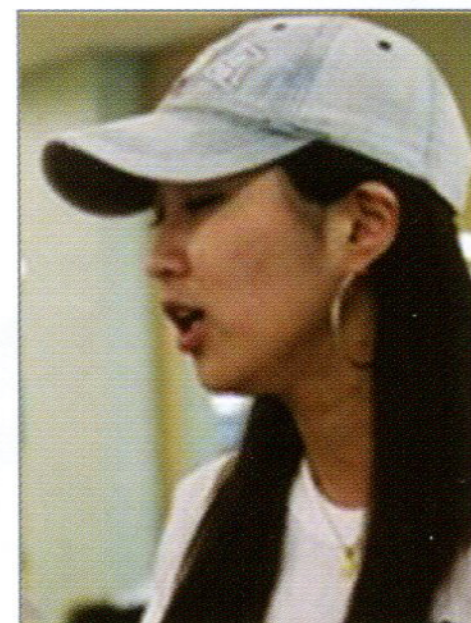
원작 **김상열**



연출 **문석봉**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연출 **오세준**



드라마트루기 **오리라**



무대디자인 **유관호**



의상·소품 코디네이터 **김봉규**



분장 **이지원**



포토그래퍼 **손재영**

Production Credits

원작 **김상열**

연출 **문석봉**
오세준

드라마트루기 **오리라**

부산시립극단
무대감독 **정순지**
기획 **김향숙**
홍보 **배정환**

출연

오광대
노파
왕비
아라녀
김춘추
의자왕
아라녀
노파
김유신
최광대
추광대·기자
관창
계백
법민
품일
성충
궁녀A
궁녀B

이돈희
정행심
이현주
김은희
황창기
이혁우
오희경
김은옥
서보기
주은실
이수아
전지은
신승우
김성열
임신호
이재찬
이호심
정인옥

Staff

무대디자인
의상·소품 코디네이터
분장
포토그래퍼
음향오퍼레이터
조명오퍼레이터
영상오퍼레이터
음향디자인 협조
조명디자인 협조
영상디자인 협조

부산문화회관

무대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하우스매니저
행정지원

유관호
김봉규
이지원
손재영
박진영
유윤주
이호선
심태형 (알파사운드)
이재철
고용한 (GIV)

장진훈
서정우
이우희
정다겸
길민준
신현숙

작품해설

사람에겐 '배넷짓'이란 것이 있어 자궁에 있을 때 하던 본성적 동작이나 짓거리가 있다. 나른하게 앉았을 때 발목을 흔든 다든가 고갯짓을 한다든가 콧마루를 찡그린다든가 하는 원형의 버릇 말이다. 이 작품은 버릇에 대한 얘기다.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의 습관과 버릇은 역사라는 긴 탯줄을 타고 내려온 버리지 못하는 반복의 짓거리들이다. 그러므로 해서 인간 사회가 절망이라는 게 아니라 그 버릇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새 질서의 가치관이나 행동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새 것인 줄 알지만 그건 옛 것의 반복이고, 변혁인 줄 알지만 언젠가 또 바뀐 것들 사이에서 인간은 그 반복의 속임수에 영악하게 속고 있다는 것이다. 명예나, 신념이나 본능이나 희생 따위가 바로 시대마다 오로지 새 옷으로 치장만 하고 똑같은 버릇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버릇의 도전으로부터 탈출하려 하지 말고 철저하게 맞서자는 것이다. 맞선다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팽팽한 실존의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다.

서기660년, 신라는 삼국통일의 과업을 수행코자 첫 관문인 백제를 치게 된다. 백제는 이미 철저하게 패망될 준비가 되었고 신라는 승리의 신념에 차 있다. 김춘추(태종 무열왕)는 자기 능력의 과신에 가득 차 있고 계백은 희생의 순교 콤플렉스에 가득 차 있다. 김유신은 지략과 음모, 용기에 뛰어나고 관창은 목적 성취에 일로 매진한다. 의자왕은 패망의 당연한 이유와 구조를 현명하게 깨닫고 있다.

이것을 버릇이라고 하는 채색 유리를 통해서 고공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것은 역사나 진실을 떠나서 하나의 어릿광대 땅재주같이 보이는 것이고 작자는 또 그렇게 피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역사나 선조들에 대한 굴곡으로 파악하지 말고 인간의 버릇으로 축소해서 즐겨야 할 것이다.

신라는 5만의 대군으로, 5천의 결사대로 맞서는 계백을 황산벌에서 전멸시키고 곧장 사비성을 함락하고 연극은 끝난다. 무대는 곡마단 무대로 선정했고 코러스 격인 광대들이 연극을 이끌어 나간다. 의상과 소품의 변혁도 다소 특이한 형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연극의 형식과 내용의 타당한 균형을 시도코자 한다. 전위 진취적인 연극에 치우치다 보면 형식의 껍질은 있되 주제가 빈약해지고, 이야기에 치우치다 보면 연극은 진부한 타성의 옷을 입게 된다. 특히 역사의 반복을 잘 용해시켜 놀이판의 유희에다 세련미를 가미시킬 것이다.

자작, 연출인 당사자가 1년간의 미국연수 중 연극 연출가 리처드 포먼과 영화감독 웨디리코 웨리니의 최근 작품에 심취했던 연출자 자신의 '인상파' 적 시각, 청각효과에 역점을 둔 것이다. 다변과 능변으로 이뤄진 대사는 무대공간을 떠받치는 주춧돌이고 행위는 기둥으로, 그리고 행간의 시정은 그 사이를 메우는 헛가루로 칠해질 것이다. 또 하나, 어처구니없음, 무절제와 파괴가 세련되어야 한다는 연출자의 지론이다.

풍자와 교훈보다는 인간사의 벽화를 불화합 색깔로 그려보려는 속마음이 있는 것이다.

1982년 4월 23일 작·연출 김 상 열

작품줄거리

서기 660년...

황산벌에서 만난 한 노파와 나그네를 가장한 계백장군, 또다른 나그네로 가장한 신라의 첩자의 만남에서 황산벌 전투의 싹이 터오른다.

스스로를 과신하며 역사를 써나가고자 백제를 침략하고자 하는 오만한 왕 춘추와 교활하면서도 지략에 능하여 황산벌 전투의 총책임을 맡은 김유신, 아버지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비판하며 전쟁을 반대하는 춘추의 아들 범민태자가 서로의 신념 안에서 뜨거운 언쟁을 벌이는 가운데 전쟁의 기운은 더욱 짙어만 간다.

한편, 의자왕은 모든 것을 초월한 모습으로 낚시를 즐기며 백제의 패망을 당연시 여기고, 3천 궁녀에게 낙화암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시키는 등 전쟁으로 인한 패망을 역사의 흐름으로 생각하며 순응하고자 한다. 침략하면 나중에는 침략 당한다는 사실을 당연한 순서와 섭리로 생각하며, 당장 현실에 부딪힌 문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한편, 계백의 아내 아라녀는 세쌍둥이를 출산하고, 계백은 그런줄도 모르고 아내를 죽이고 전장으로 나가기 위해 달려오고, 역사는 정해진 수순대로 흘러가는데....